

3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 협력

진안군, 전 주민 48.2% 접종... 7월 중 장년층·교직원 등 순서 따라 실시

진안군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9일 까지 위탁의료기관(7개소)에서 만 60세~74세 어르신들(6,509명 중 6,004명 접종 92.2%)을 대상으로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로 1차를 접종한 6,004명은 접종 일로부터 11주 후에 2차 접종을 같은 장소인 위탁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시행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 4,291명(91.7%)을 지난달 21일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바 있어 전 군민의 48.2% 접종을 실시해 전라북도에서 접종률 상위권이다.

3분기에는 ▲50대 장년층은 7월 26일 주 ▲18~49세는 8월 부터이며 ▲60~74세 등 미접종자(사전예약 후 취소된 경우)는 7월 초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 등 7월 초 ▲고3 및 고교 교직원은 7월 19일 주 ▲어린이집·유치원·초중 교직원 및 돌봄 인력은 7월 중 순서에 따라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예방접종센터에서는 빠른 일상



진안군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사진.

회복과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백신 꾸러미와 접종 후 안내문도 지급한다.

진안군보건소 리영현 감염병관리 팀장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

하고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예방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6.25한국전쟁 제71주년 기념식 거행

6.25참전용사명비 통합 이전설치 사업 준공식 함께 열려... 모범유공자 표창 등 진행

장수군은 지난 25일 오전 11시 장수를 남산 소재 6.25참전용사명비에서 장영수 군수, 김용문 장수군의회위원장,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한국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장수를 6.25참전용사명비 통합 이전설치 사업 준공식을 겸해 개최된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해 행사규모와 내용, 참석인원 등을 최소화한 가운데 국민의례, 모범유공자 표창, 기념사, 6.25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장영수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평화 아래 소중한 미래를 꿈꾸며 살 수 있게 된 것은, 71년 전의 젊은 피와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단결과 소통으로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더 밝은 미래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장수군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해 보훈가족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국민 안보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 국가



장수군은 25일 오전 11시 장수를 남산 소재 6.25참전용사명비에서 장영수 군수, 김용문 장수군의회위원장, 6.25참전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한국전쟁 제71주년 기념식을 거행했다.

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K-water, 최신 ICT기반 스마트 물 관리로 주민 물복지 실현

장수군은 물종합전문기관인 K-water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수도물 공급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비대면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2022년까지 총사업비 44억을 투입해 장수군 전지역에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원격검침) 및 배수지와 관로 상에 수질계측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장수군 전 지역에 스마트 미터링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검침업무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요금지급 업무의 투명성 확보, 실시간 누수 모니터링과 함께 물 사용량 감지가 이루어져 수도물 절약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또 수도물 적수 및 유출 사태로 인해 수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배수지와 관로

상에 수질계측지를 설치해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질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이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장수군은 지속적으로 K-water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관망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화사업 중 전국 최고 우수을 달성 등 괄목할만한 사업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김성현 시설관리사업소장은 "장수군과 K-water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주민이 안심하고 깨끗한 수도물을 마실 수 있도록 쾌적한 수질 환경을 구축하여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읍 당산리·신당산리 행정구역 분리

무주군은 무주읍 당산리가 당산·신당산리로 행정구역 분리가 됐다고 밝혔다. 당산리는 2013년도 이후 남대천변 주변으로 아파트들이 신축됨에 따라 가구 및 인구수(503가구 / 1,162명)가 급속히 증가해 행정구역 분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무주군은 지난해 8월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구역 일부 조정 계획을 수립해 절차를 진행해 지난 5월 11일자로 당산리(271가구)와 신당산리(232가구) 분리를 확정지었다.

무주읍 행정복지센터 이두명 읍장은 "당산리에 거주 가구와 주민 수가 증가를 하면서 이장 1명이 마을일을 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있었다"며 "주민들도 분리를 원하고 무엇보다 1

개리에 400가구 이상,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이 형성된 경우에는 300가구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무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요건에 근거해 당산과 신당산리 분리가 가능했다"고 전했다.

한편, 무주읍 행정복지센터는 25일 신당산리 마을 구심체 개발위원들이 추천한 신임 이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무주군 무주읍 신당산리 김성용 이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게 돼 기쁘다"며 "마을 발전은 물론, 신당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 증진과 민원 해결 등에 진심을 다하는 마을의 봉사자가 될 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여름두릅재배 시범사업 첫 결실

무주군이 설천과 무풍면 여름두릅재배 작목반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여름두릅재배'가 30kg 가량의 수확으로 첫 결실을 맺었다. 두릅은 포장 용기에 담겨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www.mjl614.com/ 063-322-0278, 320-2770)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2kg씩 구입이 가능하다.

무주군 여름두릅재배 작목반 관계자는 "무주군 고지대에서 재배한 여름두릅은 비타닌과 칼슘함량이 높고 사포닌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에 매우 좋다"며 "여름 별미로 즐기는 무주 두릅, 꼭 한 번 맛보시라"고 전했다.

'여름두릅재배'는 산림특화품목 육성을 위해 임야 또는 유휴 토지에 두릅을 심어 재배하는 것으로, 무주군은 2020년 설천면 여름두릅재배 작목반(10농가 / 1만㎡)을 구성해 10월부터 종근(1,000㎡당 1,800주 식재)과 관수 시설(모터, 펌프 등)을 지원해왔다.

한편, 여름두릅은 종근 번식해 활착률이 90%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수확 시기는 5~10월까지다. 수확량은 하루 1,000㎡ 기준 최대 3kg으로 6개월 간 30~60회 수확(3~5일 간격으로 수확)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 통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 프로그램 심리 안정 효과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치매환자와 가족들로부터 심리적 안정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4일 치매안심센터 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만사형통' 치유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경중 치매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무송승지체합마을에서 사과 피자 만들기와 천연비누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체험 행사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체험에 임했으며, 연신 흐뭇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제약이 많아지면서 치매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체험을 통해 과거를 회상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동향면

행정복지센터 준공식

진안군 동향면(면장 안계현)은 지난 25일 동향면행정복지센터 신청사에서 '동향면행정복지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은 전춘성 군수, 김광수 군의장, 이한기 도의원, 주민 등 1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구에서 명부작성·발열체크를 시작으로 이루어졌다.

동향면행정복지센터는 2018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군비 57억원을 확보한 이후, 2020년 3월 착공 1년 4개월의 건립기간을 거쳐 동향면 진성로 1609번지(연면적 1,704.04㎡)에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됐다.

청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행정민원실, 다목적강당, 복지상담실, 농업인상담소가 위치해 있어 열린 행정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는 소회의실, 프로그램실 3개소, 체력단련실, 아카데미, 야외쉼터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이 마련되어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